

## 기억과 평론

권용립(경성대)

2010년이 가고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연평도를 거쳐 G-20에 이르기까지 2010년의 한반도를 배회한 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연평도로 이어진 북한발 위기의 이면에는 권력 대물림 수순에 들어간 그네들 내부 사정이나 장기적으로 전개될 미-중의 대립 구도를 계산한 중국의 북한 비호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비핵화 이행’이나 ‘도발 중단’ 같은 공허한 요구와 파괴력 없는 제재뿐이라는 평양 수뇌부의 기억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도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동요하는 달러 패권체제의 미래와 그것이 한국에 미칠 여파를 치밀하게 예측하기보다는 G-20을 세계가 주목하는 화려한 이벤트로만 몰아가면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섰다고 감음해마지 않던 선정적 미디어들의 저변에 깔린 것은 중심 콤플렉스였습니다. 그것은 백 년 전 서구의 변방으로 전략한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중국과 일본의 소변방을 차례로 전전하면서 겹 변방의 숙명을 인고해왔던 회한의 기억에서 우리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함을 선연히 보여

주었습니다. 숨어 있든 드러나 있든, 개인의 기억이든 집단의 기억이든, 과거는 이처럼 기억을 통해 현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억, 특히 정치적 기억은 원형 그대로 복원된 과거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구성된 과거입니다. 정치평론이 설 자리는 여기입니다. 정치평론의 임무는 과거에 수립된 공적 기억을 해부하고 앞으로 수립될 공적 기억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과거가 될 눈앞의 현실을 선택적으로 포착해서 부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론의 기능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내일의 기억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마음질이 평론이며, 그 기억의 열개를 짜는 것이 평론의 책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자의적으로 구성되기 쉬운 공적 기억의 틀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평론의 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마음질해서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것만이 평론의 책무는 아닙니다. 과거를 마음질해서 현재를 가늠하는 것도 평론의 기능입니다.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평론이 실렸지만 이번 호의 논문과 평론들은 내일을 마음질한 글보다는 오늘을 어제에 빚대면서 지금의 현실을 가늠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17세기 조선 조정과 21세기 한국의 해외파병 논쟁을 비교한 계승범 교수, 고려의 대거란 외교를 현대 한국외교의 준거로 삼은 박종기 교수, 중국의 부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논평한 헌트 교수, 한반도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검토한 시메이 칭 교수, 북한 문제의 대안적 해법들을 다룬 퀴노네스 교수의 글은 평론이든 논문이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기억을 마음질하든, 어제의 기억으로 오늘을 짚어보든, 정치사회적 언술의 본질은 직관입니다. 직관은 언어를 거치지 않고 가능합니다. 또 물리학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직관은 찰나에 다가옵니다. 다만 그 직관에 이르기까지, 또 그 직관을 풀어내는 데 언어와 세

월이 필요할 뿐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발견에 뒤따르는 수많은 글은 한 순간의 직관과 영감을 언어로 풀어내는 긴 과정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연구 논문들도 필자나 다른 누군가의 직관을 언어로 풀어낸 것입니다.

2011년에도 나라 안팎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겠지만, 범속한 관찰을 교언으로 수식하는 장식적 평론이나 논문보다는 직관적 통찰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용적 담론을 통해 눈앞의 현실을 언어로 재단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는 오히려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오늘을 장악한 기억의 그늘을 들춰내고 내일의 기억을 준비해주는 고급 소재입니다. 『정치와 평론』이 공적 기억의 열개를 추적하고 또 마련해주는 직관과 통찰의 전범을 하나씩 마련해나가는 두터운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